

- 본문 : 누가복음 10장 25~37절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제목 : “누가 나의 이웃인가?”

· 본문 읽기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기억나는가? 이 비유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갖가지 태도를 설명한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새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 순식간에 싹을 틔웠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탓에 햇볕에 시들어 버리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의 등쌀에 못 이겨 죽고 만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엉뚱한 곳에 떨어진 씨앗과 달리 좋은 땅에 떨어져 상상도 못할 열매를 맺는 씨앗도 있는 소망을 전하신다(마13장).

우리는 네 번째 땅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뿌린 씨앗 중 일부는 분명 좋은 땅에 떨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비유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다. 전도에 있어서 상실감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상심과 함께 냉소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므로 ‘한 영혼’이 영원한 죽음의 무서운 손아귀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당장이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겠는가? 당신은 네 번째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씨앗을 뿌리는 일을 포기하고 있는가?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30~37절)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돌봐 준 ‘사마리아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갖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개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누가복음 10:28, 37
2.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대해 강조하시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요한일서 3:18
* 야고보서 2:17~26
3.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에서 이웃 사랑의 원리를 찾아보라. 당신은 이 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 누가복음 10:27b ; 33 ; 37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막8:36)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날이 훨씬 더 많음을 암시한다. 우리 가족, 친구, 이웃, 친지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포기할 것인가? 새생명축제를 한 주 앞에 두고, 그리고 평생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서의 결단과 구체적인 실천을 계획해 보라.

· 말씀기도제목

1.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웃사랑이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이 되게 하사, 내가 친구와 이웃이 되어야 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2.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진 자로서, “마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신앙”을 벗어나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2024 새생명축제」를 통해 “누가 나의 이웃인가?” 깨닫게 하실 때, 태신자들의 인생 방향과 교회 방향이 끝나는 새생명축제 되게 하옵소서!

